

탄생 100주년 명인, 공연으로 만나다

국립무형유산원, 11월 10~11일 '명인오마주박해일' · 24~25일 '명인오마주-성금연'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11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일주마루 대공연장에서 2023 명인오마주-박해일, 성금연 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명인오마주'는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작고(作故) 명인의 삶과 예술을 회고하는 공연으로, 명인에게 기·예능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정 공연을 통해 명인이 평생 바쳐 이룩한 예술세계의 발자취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는 '발탈' 보유자 박해일과 가야금산조 및 병창 명인 성금연을 회고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먼저 10일과 11일 오후 7시 30분에는 명인 오마주-박해일 편이 열린다. 박해일 명인은 서울 출생으로, 초대 '발탈' 보유자인 조하소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아 제자로써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발탈' 복원에 참여하였으며, 1996년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2007년 작고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명인의 생전 기록영상과 구술자료, 사진, 음원 등을 토대로 한 평생 발탈의 복원과 전승에 힘썼던 명인의 삶을 연극과 음악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박해일 명인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발탈 보유자 박정임과 조영숙이 출연하여 제자들과 함께 박해일 명인의 삶과 발탈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줄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 명인오마주 포스터

류가야금산조 유파를 형성하고 「새가리별곡」, 「춘몽」, 「향수」 등을 작곡했다. 또한 국악예술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최초로 전통음악을 오선보로 기록한 『가야금산조와보X』를 출간하고, 12현 가야금을 개량한 15현 가야금을 고안하는 등 폭넓은 예술적 기량을 지녔다.

이번 공연은 성금연의 딸 지성자(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를 포함한 직계 지손과 그의 예술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보존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화합의 장을 이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종강 음악평론가가 진행을 맡아 풍성한 해설을 더한다.

공연은 무료며,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 유튜브(www.youtube.com/@nihc2014)에서도 실시간 감상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우리 무형유산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노력했던 명인들의 삶과 노고에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성기자

정읍시, 오페라 갈라 콘서트 개최

내달 6일 이태리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주역가수 초청 진행

정읍시는 11월 6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이태리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사)호남오페라단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태리 주역가수를 초청하여 기획한 작품이다.

주요 출연진은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태리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주역가수 소프라노 제수아 갈리포코, 바리톤노 자코모 메디치와 9명으로 구성된 휘토즈 챔버 심어즈의 등이다.

관람 대상은 8세 이상으로, 관람료는 무료이며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해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



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띠뱃땀 손자수 연구원 회원전 '바늘, 마음 있다' 개최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12월 25일까지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2층)는 31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 띠뱃땀(원장 차수자) 손자수 연구원의 네 번째 전시회 '바늘, 마음 있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땀, 한땀 수를 놓아 띠를 이뤄 작품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진 띠뱃땀의 이번 전시는 차수자와 14인이 참여한 전시로 회화적 지수 작품과 생활 소품에 수놓은 자수공예 작품 5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띠뱃땀은 자수가 예술로서의 회화적 가치가 있으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특성에 매력을 느낀 회원들이 모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목적을 두고 모임을 시작했다. 2014년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지금까지 전시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은 "전시를 통해 어릴 적 할머니의 바늘땀 향수를 떠올리며 지수가 주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며 마음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전시관은 지역 작가



들의 창작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작가를 선정하여 전시 기회 제공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지난 27일 예술관 1층 리사이틀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HK+연구단에서는 2019년부터 근대 동아시아 유교문화 연구의 중요 자료로 일본의 대표적인 유교 단체인 사문회(斯文會)의 기관지인 '사문(斯文)'을 새롭게 발굴해 연구단의 자료 총서로 발간해 관련 학계에 소개하고, '사문' 및 근대 유교문화에 대한 분석 및 학술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연구단에서 도출해 온 그간의 성과들을 집대성하고, 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변주승 단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근대 동아시아 3국의 유학자들 간의 교류 및 그들의 유교 연구와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된 '황도 유학' 등 제반 유교 담론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학문의 장이었다"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근대 유교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인 '사문'이 학계에 널리 소개돼 동아시아 근대 유교문화를 더 풍부하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기자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지난 28일 '아리랑 12권 함께 읽기' 인문학 프로그램의 수강생 25명과 김제를 무대로 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탐방하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소설 아리랑과 함께 거닐다

김제시립도서관, 아리랑 독서단 참여 소설 배경 장소 탐방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지난 28일 '아리랑 12권 함께 읽기' 인문학 프로그램의 수강생 25명과 함께 김제를 무대로 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탐방하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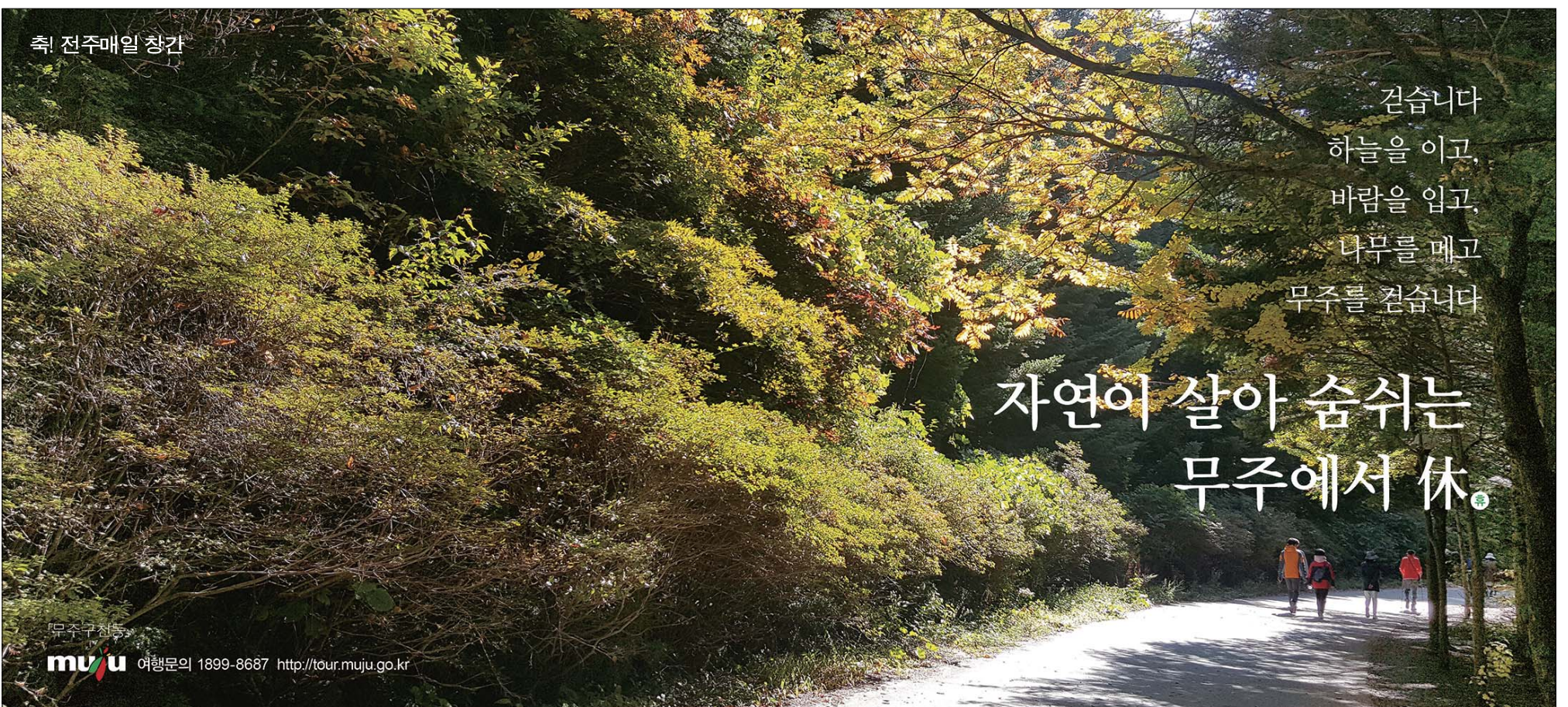
먼저 김제평야에서 생산한 쌀을 나르던 청하면 새창이 다리를 거쳐 심포항과 광활 간척지를 지나 만경 일대를 돌아 정읍의 구마포토 농장과 아리랑 문학관까지 소설 아리랑의 배경지를 따라가는 문화탐방으로 진행되었다.

김제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이다. 이 때문에 일제침탈이 시작되던 1903년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극심한 착취가 자행됐다. 조정래 작가는 "토지 조사업에 의해 수많은 농민이 농토를 잃고 만주로 유린 방황해야 했다"며 그런 요인이 김제

가 아리랑의 배경이 된 이유"라고 밝혔다.

독서단은 "조정래 작가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애환 투쟁을 그린 소설 아리랑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고 김제의 일제 수탈 착취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아리랑 문화마을과 아리랑 문학관 등을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육성을 통해 듣고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시립도서관의 아리랑 함께 읽기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대하소설 아리랑 12권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강좌 중 하나이다. 우리 고장 김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분은 시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540-4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박노태 기자



추! 전주매일 창간

견습니다
하늘을 이고,
바람을 입고,
나무를 메고
무주를 견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주에서 休.